

<2019년 12월 1일 주일말씀>

도와줘야, 받은 축복을 누린다

본 문 누가복음 5장 3-11절

◎ 도와줘야, <받은 축복>을 누린다. -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먼저,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

<누가복음 5장 3-11절>을 보겠습니다.

◆ 예수님께서 <게네사렛 호숫가>에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.
그때 예수님께서 ‘시몬의 배’에 오르셨습니다.

여기서 <시몬>은 ‘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’ 죠!

거기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,
“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.” 하셨습니다.

전날 밤, 시몬과 그 동무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
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.

시몬은 “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.”
하고,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.

그렇게 하니 ‘많은 물고기들’ 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고,
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.

그렇게 해서 물고기들을 ‘두 배’ 에 가득히 채웠다고 했습니다.

- ◆ 이것을 보고 <시몬 베드로>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

“주여, 나를 떠나소서.

나는 죄인입니다.” 하고 두려워했습니다.

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기에,

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‘주께 고백한 말’ 입니다.

<시몬>뿐 아니라 시몬의 동업자인 <야고보>와 <요한>도 놀라고,
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.

- ◆ 예수님은 ‘고기 잡은 데’ 서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,

“무서워하지 말아라.

이제는 내가 <사람>을 취하리라.” 하셨습니다.

<사람을 낚는 어부>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.

- ◆ 베드로는 ‘배와 그물’ 을 버리고 ‘주를 증거’ 하여

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데려오는 <주님의 수제자>가 되었습니다.

<전환>

◎ 그러면 지금부터 ‘두 가지’ 를 말씀할 텐데요,

첫 번째 :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,

두 번째 :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,

말씀하겠습니다.

<첫 번째 교훈과 행할 것>

- ◆ 베드로는 ‘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’에 그렇게도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.

그런데 먼저는 <예수님의 복음의 말씀>을 들었습니다.

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

“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.” 한마디 해 주셨습니다.

그 말씀을 행했더니, ‘많은 고기들’을 잡았습니다.

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히니 혼자서는 그물을 올릴 수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하여 잡았습니다.

이것이 <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첫 번째 표적>입니다.

- ◆ 그 유능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못 잡았습니다.

<그 일의 전문가들>도 못 했는데,

<어부>도 아닌 <예수님>은 하셨습니다!

그래서 <사명자>이고 <메시아>입니다.

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!

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<주님의 말씀>을 듣고 행하면, 됩니다!

그래서 <주님>이고, <주님의 말씀>입니다!

<역사하는 힘과 권세>가 다릅니다!

그러나 베드로처럼 행해야! <표적>이 일어납니다.

◆ 여기서 <첫 번째 깊은 고혼>이 있습니다.

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

먼저는 <예수님의 복음의 말씀>을 들었습니다.

그랬더니 예수님께서 ‘베드로’ 를 불러서

“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.” 하셨습니다.

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니, <표적>이 일어났습니다.

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먼저는 <시대 복음의 말씀>을 듣고서,

자기 애로사항을 주께 고해야 됩니다.

이것이 <첫 번째 고혼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>입니다.

◆ <주>도 모르면서 ‘물어보기’ 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
적어도 ‘설교를 한 번’ 이라도 들어 봐야,

<그 사람에게 대화할 여건>이 생깁니다.

고로 주 앞에 생명을 데려와서 물으려면,

먼저 ‘한 가지’ 라도 가르치고 데려와야 합니다.

<두 번째 교훈과 행할 것>

- ◆ 다음은 <두 번째 깊은 교훈>입니다.

예수님은 베드로에게 <고기를 잡는 표적>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,
“이제는 네가 <사람>을 취하리라.” 하셨습니다.

아마 베드로는,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.

예수님이 코치해 주시니 ‘자기가 혼자서 한 것’ 보다
<더 많은 고기를 잡은 표적>이 일어났듯이,
이제는 ‘주가 코치하시는 말씀’ 을 잘 듣고
<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데려오라는 말씀>이었습니다.

이후 베드로는 <예수님>이 ‘메시아’ 임을 제대로 알고 기뻐하며
주께 말씀을 배우고 ‘많은 생명들’ 을 주 앞에 데려왔습니다.

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, <베드로의 외침과 증거>를 듣고
하루에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.

역시, 메시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에
이런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.

- ◆ 베드로는 <자기 본 직업>이 ‘어부’ 였습니다.
예수님을 만났을 때,
이때 먼저, <시대 복음>을 들었습니다.

그러니 주께서 ‘자기 문제에 대한 답’을 주셨고,
베드로는 즉시! 행했습니다!

그리함으로 <자기 본 직업으로 인한 축복>을 받았고,
이것이 <표적>이 되었습니다.

그랬더니 예수님은 <영적인 축복의 말씀>을 주셨고,
이후 베드로는 역시 <주의 말씀>대로 행해서
<주의 수제자>가 되어 <영원한 축복>을 받았습니다.

이것이 <두 번째 깊은 교훈>입니다.

◆ 여러분도 모두 이같이 해야 됩니다.

지금 각자 <자기가 하는 일>이 있고 <자기 직업>도 있습니다.

<시대 복음>을 듣고 ‘주’를 알았으니,
<주님이 주시는 말씀>을 행함으로
<자기 본 직업으로 인한 축복> 받기를 축원합니다!

그리고 그것을 <표적>으로 삼고 <영적인 일>을 하여서
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주 앞에 <많은 생명들>을 데려와야 됩니다.

그러면 <자기 본 직업으로 인한 축복>과는 다른,
<엄~청난 역사>가 일어납니다!

<축복의 차원>이 달라지고 <운명>이 뒤바뀝니다!
<영원히 후회 없는 사랑의 직업>이 됩니다!

이것이 <두 번째 고평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>입니다.

◆ <이 시대 주의 증거자>도 그러했습니다.

그랬더니 <증거자의 외침>을 듣고 수백, 수천 명의 사람들이

- <주>를 깨닫고 시인하게 되었고,
- <성령>을 받아 회개하며 진리로 무장하게 되었고,
- 그로 인해 <휴거의 뜻>을 더욱 깊이 깨닫고 단장했고,
- 더욱 차원 높여 <주>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.

그로 인해 <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축복>과는 비교할 수 없는
<큰 축복과 사명>을 받고,

지금도 세계를 누비며 한 민족을 일깨우고

주와 같이 ‘하나님의 역사’를 외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.

◆ 베드로는 <메시아>를 만나고 나서

<평생 자신이 못 했던 표적>을 보고 체험했습니다.

그리고 <메시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>은

<땅과 하늘같이 다른 세계>였습니다.

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<메시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>이 완전히 다릅니다.

* 설교자 본인이 증거하기.

혹은, 한 사람 미리 준비하게 해서 간증하기.

시간은 5~7분이 적당

- ◆ 모두 그러합니다.

지난날을 생각하면서, 감사감격하며 잘~해야 합니다.

<세 번째 교훈과 행할 것>

- ◆ 다음은 <세 번째 교훈>입니다.

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,
많은 고기들이 잡혀서 <혼자서>는 그물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.

그때, <동무들>을 불러서 함께하여
<주신 축복>을 감당하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.

- 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<하나님과 주가 주신 육적인 축복>과 <신앙의 축복>도
<혼자서>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.

<자기 동무들>을 불러서 ‘같이’ 해야
많은 축복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!

- ◆ 주가 어떤 사명을 맡겼어도 ‘혼자서’ 하면 힘듭니다.
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.

독재로 ‘독불장군’ 이 되어서 하지 말고,
<뜻 있는 사람들>과 <동무들>과 의논하며 같이 해야 됩니다.

그래야 <큰 일>을 할 수 있고,
<하나님과 주가 주신 축복>을 누리게 됩니다.

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 해서 <주신 축복>도 뺏기게 됩니다.

- ◆ <한 나라의 일>도 그러하고, <세계의 일>도 그러합니다.

정치, 종교, 예술 등 모든 일들도
하나님의 뜻대로 <뜻 있는 사람들>을 불러서 합동하여 행해야
더 <큰 일>을 하고 <하나님이 주신 축복>을 누립니다.

은하수도, 중고등부도, 대학부도, 청년부도, 가정국도, 장년부도
모든 각 부서가 그러합니다.

<한 차 선교>를 하든지, <어떤 일>을 하든지
<하고자 하는 사람들, 뜻 있는 사람들>과 뭉쳐서
같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.

이것이 <세 번째 교훈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>이며,
<오늘 말씀의 큰 핵심>입니다.

- ◆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서 많은 고기들을 잡았는데
<혼자> 그물을 끌어당겼으면,
그물이 다 찢어져서 <축복의 표적>을 상실하고
너무도 안타까워하며 실망했을 것입니다.

<동무들>을 불러서 ‘함께’ 했기에 다 잡았습니다!

◆ 우리도 ‘같이’ 해야 됩니다!

<육적인 축복의 일>도 그러하고,
<영적으로 받은 사명과 축복의 일>도 그러하고,
<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데려오는 일>도 그러합니다.

조직하여 ‘많은 사람들과 함께’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려면 ‘많은 사람들을 꼭 키우면서’ 해야 됩니다!

◆ <주>도 ‘따르는 사람들과 함께’ 하니, 감당합니다.

<자연성전 하나님의 궁>도 ‘선생 혼자’ 하지 않고,
모두 함께했기에 ‘축복의 역사’를 이뤘습니다.

<전 세계 각 교회 성전>도
모두 함께했기에 사고, 짓고,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.

◆ 모두 ‘함께’ 해야 잘됩니다. 큰일일수록 ‘함께’ 해야 됩니다.

◆ <주>는 지난 4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
<각 분야의 개성체들>을 모아서 함께해 왔습니다.

고로 <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역사>를 이뤄 왔습니다.

◆ 섭리사의 각 교회들도

<교역자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>일수록 잘되고 성장했습니다.

◆ <주님의환돌교회>도

계속해서 조직하고 분담해서 함께하니 그렇게 잘됩니다.

교역자가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도
<혼자서>는 할 수 없으니 <함께>하자 하면서,
계속해서 <주의 말씀>을 ‘핵’으로 삼게 하고
<주의 정신>으로 가르치고 어린 자들까지 키우면서
잘한다고 인정해 주고, 칭찬해 주고, 의논하고,
계속해서 일을 맡기고 함께하니 그렇게 성장했습니다.

그러니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
<주가 찾는 사람들>이 많고
<갓가지로 사명을 맡길 사람들>이 많습니다.

주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끝까지 행하니,
<끝의 황금 역사>에 와서 더 빛이 납니다.

◆ 모든 교회들도,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.

혼자서는 ‘자기에게 해당되는 일’ 밖에 못합니다.
둘이 셋이 같이 하면 ‘더 크게 다양하게’ 하게 됩니다.

또한 혼자서 잘하기도 하지만 ‘인간의 한계’가 있습니다.
그때는 <동무들>을 불러서 같이 해야 됩니다.

조직하여 같이 하고,

조직이 잘되게 하려면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.

또한 <유능한 일꾼들>을 늘리면 안 됩니다.

없다고 하지 말고, ‘만들기’도 하고 ‘찾기’도 해야 됩니다.

이렇게 모두 ‘함께’ 해야 잘되고, 번창하고,
주가 주신 축복을 감당하고 누리며, 더 이상적으로 하게 됩니다.

- ◆ 말씀을 선포했으니, **모두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**
〈더 큰 표적〉과 〈축복〉을 감당하며 누리기를 축원합니다!

◎ 이어서 수요일에 깊은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.